

전북 '예상 깬 선전' 3일째 종합 6위 순항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선수단이 대회 3일째인 2일에도 예상밖의 선전을 이어가면서 종합 6위(오후 5시 현재)를 유지했다.

전북선수단은 2일 양궁에서 한꺼번에 4개의 금메달을 쓸어담는 집중력속에 남중 씨름과 남초 태권도에서도 각각 1개씩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이날 하루 모두 6개의 금메달을 추가했다.

전체 메달 집계에서 전북은 금 22개, 은 19개, 동 26개 등 모두 67개의 메달

전체 메달 집계 금22 은19 동26개...총 67개

을 획득해 서울·경기·경남·강원·전남에 이어 종합 6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소년체전에서 따낸 금메달 16개(종합 14위)를 일찌감치 추월하며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선전을 펼치고 있다.

대회 종반에 접어든 2일에는 양궁이 특히 빛을 발했다.

이날 오후 광주 염주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여중부 경기에서 이진영(임실오수중2)은 50m와 30m 경기에서 금 화살을 쏘며 개인종합 우승까지 거머쥐어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앞서 열린 양궁 남자 초등부 경기에서는 기대를 모았던 오승렬(전주기린초6)이 30m 경기에서 화살 1발을 잘못 쏘

는 실수로 입상권에 들지 못했지만 이어진 2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 위안삼았다.

남중 씨름(경장급)에서 금메달 후보로 꼽혔던 전태진(전주풍남중3)이 예상대로 금메달을 추가했으며, 남초 태권도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차준규(완주삼례초6)가 금메달을 획득해 전북선수단을 기쁘게 했다.

전북선수단은 대회 마지막 날인 3일

배구와 야구·핸드볼 등 단체종목과 수영·레슬링 등 개인·체급종목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올해 열린 2개 전국대회를 제패한 배구의 남성중이 대구 사대부중과 금메달을 다투며, 창단이후 처음으로 전국대회 결승에 진출한 야구의 전라중이 대구 경성중과 결승에서 맞붙는다. 여중 핸드볼 정일여중과 남중 펜싱 이리중(사브르)도 금메달에 도전한다.

광주=강인석기자 kangis@



'돌부처' 이선화 LPGA 역전 우승

‘돌부처’ 이선화(22.CJ)가 1년동안 이어진 한국선수 무승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선화는 2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샬스턴 리버타운 골프장(파 72.6천459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킷트리뷰트 최종 라운드에서 극적인 역전 우승을 일궜다.

선두 소피 구스타프슨(스웨덴)에 9타나 뒤진 채 경기에 나선 이선화는 5언더파 67타를 때려 카리 웹(호주)과 함께 공동 1위(14언더파 274타)로 올라섰고 18번홀(파 4)에서 치러진 연장전에서 파를 지켜내 3퍼트 보기를 적어낸 웹을 제쳤다.

시즌 첫 우승이자 개인 통산 3승째인 이선화는 특히 지난해 7월 HSBC메치플레이 챔피언십 이후 27개 대회가 치러진 동안 나오지 않았던 한국 선수 챔피언이 되는 기쁨을 누렸다.

우승 상금 39만 달러를 받은 이선화는 상금랭킹 4위(65만6천달러)로 뛰어 올랐다. 기대하지 않았던 우승이었기에 짜릿함은 더했다.

연합뉴스

허정무감독 “이운재 대표팀에 도움될 것”

“명예회복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허정무(53) 축구대표팀 감독이 최근 불거진 ‘이운재(수원) 사면론’에 대해 “후배들이 기술적으로 배울 게 많은 선수”라며 또 한번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허 감독은 2일 오후 과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치러진 대표팀 훈련을 마친 뒤 “이운재를 대표팀에 다시 기용하겠다는 문제는 갑자기 부각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것”이라며 “대표팀 복귀는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명예회복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운재는 지난해 아시안컵 대회 도중 음주과문으로 지난해 11월 축구협회로부터 대표팀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허 감독은 “이운재의 사면 문제는 아직 과정에 있는 사항이어서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제한 뒤 “축구협회에 임의로 요청을 할 사항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선수들은 경정이 필요하다. 이운재는 경험이 많은 선배이고 그동안 좋은 활약을 해왔었다”며 “후배들도 기술적으로 배울 게 많다. 이운재로 인해 후배들의 사기가 꺾인다고 보다 팀에 도움이 될 선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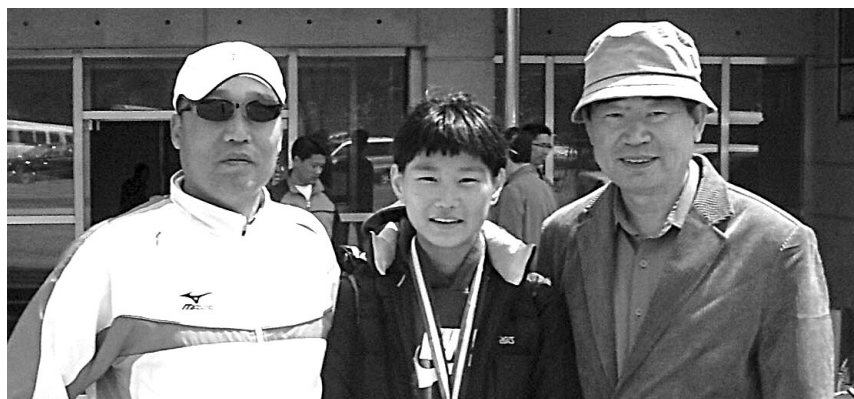
한국, U-17 여자월드컵서 브라질·잉글랜드와 한 조

17세 이하 여자축구대표팀이 10월 뉴질랜드에서열릴 2008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청소년월드컵에서 잉글랜드, 브라질과 같은 조에속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일 “전날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대회 조 추첨 결과 브라질, 잉글랜드, 아프리카 대륙 예선 통과 팀과 함께 D조에 속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0월30일 웰링턴에서 아프리카 팀과 첫 경기를 한 뒤 11월2일브라질과 2차전, 5일 오를랜드에서 잉글랜드와 최종전을 차례로 치르게 됐다.

아프리카는 지역 예선이 끝나고 7월 중에 본선 진출 팀이 결정된다.

연합뉴스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여중부 높이뛰기 최종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전주신일중 이민희 양(가운데)과 정현철 교사(왼쪽), 이광훈 교장.

창단 9개월만에 金 “전북 만세”

높이뛰기 신일중 이민희

전주신일중(교장 이광훈)이 육상부 창단 9개월만에 광주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 학교가 운동 축제 분위기다.

신일중 1학년 이민희 양은 지난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여중부 높이뛰기 최종 결승에서 1m65cm를 기록, 경쟁자인 전남 대표 3학년생을 물리치고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결승전에서 이 양이 피말리는 경합 끝에 금메달을 따내자 이를 지켜보던 도교육위 신국중 의장과 박규진 위원, 유

기태 전주교육장, 이광훈 신일중교장과 교직원, 응원 나온 학부모 등은 “신일중 만세” ‘전북만세’를 외치는 등 현장은 온통 열광과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다.

다른 시도의 경우 2~3학년 학생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특히 단 3명의 선수로 육상부를 창단한지 9개월만에 가장 큰 대회인 소년체전을 석권하자 학교에는 격려 전화가 쇄도했다.

지난해 9월 부임하자마자 육상부를 창단, 신일중 패기를 만든 정현철 체육교사(45)는 “지난 겨울 과학적인 집중훈련을 거치며 큰 발전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위병기자 bkwee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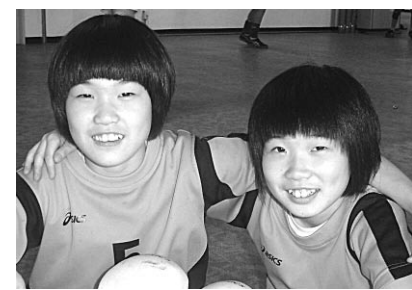
“끌어주고 밀어주고” 쌍둥이 자매

핸드볼 정음 동신초 손묘화·가나 눈길

‘언니는 끌어주고 동생은 밀어주고’ 여자 초등부 핸드볼 종목에 출전한 정음 동신초는 2일 아쉽게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지난해 일본에서 건너온 다문화가정 자매가 이번 대회 내내 맹활약해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들은 손묘화(6년)·손가나(5년) 자매로 이들은 엄마의 고향인 일본에서 태어나 살다가 지난해 5월 한국에 돌아왔다. 지난해 7월 열린 전북 육상평가대회 정음시 대표선수 명단에 들어있는 묘화를 눈여겨 본 박종문 정음동신초 감독의 눈에 띄어 핸드볼에 입문한 이들 자매는 팀 전체 득점의 1/3 정도를 합작하고 있다.

레프트윙인 언니 묘화는 풀타임을, 라이트윙인 동생 가나는 교체 멤버로 뛰며



코트를 누비고 있는데 박 감독은 “묘화는 순발력과 센스가 뛰어나고 득점 뿐만 아니라 수비도 잘해 팀 공헌도가 높다”고 칭찬했다.

두 자매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운동하는 것이 재미있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 좋은 핸드볼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금빛 발차기에 MVP ‘접경사’

태권도 라이트 헤비급

완주삼례초 차준규

2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초등부 태권도 라이트 헤비급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며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뽑히는 영광을 안은 차준규(완주삼례초6)는 “전국대회에서 처음 금메달을 따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때 취미로 태권도를 시작한 준규는 완주군 삼례읍에서 우석체육관을 운영하는 김태영 코치의 눈에 띄어 5학년때부터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김 코치는 “준규가 태권도 선수에게 유리한 원발잡이 인데다 힘이 좋고 근성까지 갖춰 선수 임무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준규는 본격적인 선수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여성부장관기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며 타고난 기량을 펼쳐보였다.

원발 돌려차기가 장기인 준규는 이번 소년체전에서 결승까지 4경기를 무실점으로 승리해 MVP의 영예



를 함께 안았다. 월등한 기량을 뽐내며 두 경기를 7-0으로, 다른 두 경기를 3-0으로 승리했다.

김 코치는 “준규는 태권도 선수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훈련에도 성실히 임하는 노력과”라고 칭찬했다.

“체력훈련이 조금 힘들다”는 준규는 “국가대표가 돼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강인석기자 kangis@

엄마는 코치, 딸은 선수

임실 오수중 진현주 코치·오수초 김현비 모녀 양궁 출전

‘엄마는 코치, 딸은 선수’

양궁 여자 초등부 전북선수단에 모녀가 코치와 선수로 함께 출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임실 오수중 진현주 코치(37)와 오수초 김현비 선수(6년). 초등학교 4학년때 양궁에 입문한 진 코치는 여고(전주여고)까지 선수로 활약하다 오수초와 오수중 겸임코치를 맡아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다.

현비는 테니스 선수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테니스 라켓을 잡았지만 초등 2학년때 테니스가 힘들다며 꺼려해 양궁으로 종목을 전환했다. 진 코치는 “현비가 초등학교이지만 중학생 못지 않은 좋은 체격조건을 갖고 있어 앞으로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일 열린 경기에서 강혜인·이효정



(오수초6), 최유진(전주신동초6)과 전북선발로 함께 출전해 단체전 은메달을 딴 현비는 “양궁이 하면 할 수록 재미있고 힘든 것 보다 즐거운 일이 더 많다”고 말했다. 양궁 국가대표 박성현 선수(전북도청)를 좋아한다는 현비는 “국가대표가 돼 좋은 성적을 내고 양궁장을 만들고 싶다”는 전진스럽고 소박한 꿈을 밝혔다.

‘확률농구 맹훈’ 올림픽 본선 간다

김주성·하승진 대표팀 첫 합류

“득점력 높은 확률농구로 올림픽 본선 행 티켓을 포기하지 않겠다.” 12년 만에 올림픽 티켓 확보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남자농구 대표팀이 2일 오후 국내 최강진 센터 하승진(23)과 김주성(29)의 합류로 본격적인 팀 훈련을 시작했다.

김주성은 신혼여행을 다녀와 지난 달 29일 귀국, 경기도 용인 KCC 체육관에서 진행된 대표팀 훈련에 동참했고 하승진도 무릎과 허리강화를 위한 재활에 몰두한 뒤 정상훈련에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냈다.

7월 그리스에서 열릴 2008 베이징올림픽 예선전을 앞두고 남자 농구 대표팀 12명이 모두 모이는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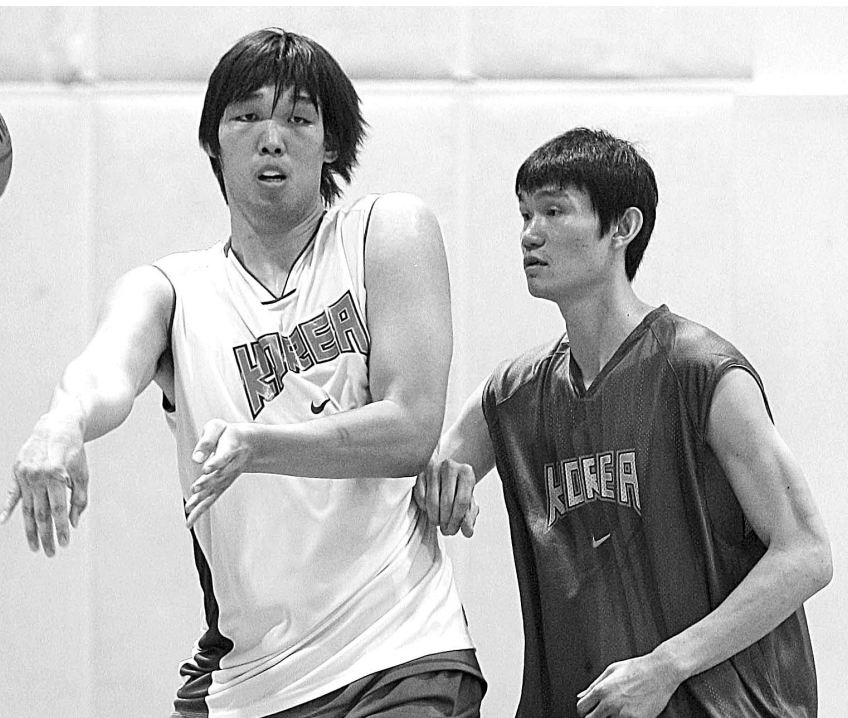
그동안 대표팀 훈련에는 김주성과 하승진 두 명의 센터진이 빠져 있던 터라 끝밀에서 득점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가버논 러닝과 드리블로 몸

을 뚫은 대표팀은 곧바로 훈련을 시작했다. 2시간에 동안 진행된 훈련에서 눈길을 끄는 장면은 득점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속공과 끝밀 공략 연습.

김남기 농구 대표팀 감독은 특히 김주성과 하승진을 이용해 외곽에서 패스를 받아 끝밀 득점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반복했고 이들 두 명은 서로 호흡을 맞춰갔다.

하승진은 컨디션이 크게 회복된 듯 연습 도중 투핸드 덩크슛을 터뜨리기도 했다.

오랜만에 코트에 선 김주성이 끝밀에서 던진 슛도 그대로 림을 통과했다. 김 감독은 “김주성과 하승진의 합류로 이제부터 제대로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동안 해 왔던 훈련에 두 명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구대표팀은 4일~6일 동안 고려대와 성균관대, 다시 고려대와 세 차례 연습경기를 치러 실전 감각을 쌓을 예정이다.



맹훈련하는 하승진과 김주성 7월 그리스에서 열릴 2008 베이징올림픽 예선전을 앞두고 남자 농구 대표팀 12명이 모두 모인 가운데 2일 경기도 용인시 KCC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농구 올림픽 대표팀 훈련에서 김주성과 하승진(왼쪽)이 맹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